

“해외가 살 길”… 변곡점 맞은 플랫폼 공룡, 글로벌 정조준

정부 독과점 규제 등 플랫폼 압박
네이버 “5년 내 사용자 10억명”
글로벌 톱 티어 기업 목표 선언

카카오, 콘텐츠 기반 사업 확대
메타버스로 ‘비욘드 코리아’ 실현

네이버와 카카이가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정부가 최근 플랫폼 독과점 규제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해외 시장 공략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흥은택 단독 대표 체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오는 1월말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인 ‘کم패니언데이’를 개최해 올해 사업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최 대표는 ‘네이버가 글로벌 톱 티어 인터넷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취임 직후에도 “5년 내 글로벌에서 10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매출 15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먼저 ‘글로벌’, ‘기술’, ‘SME(중소상공인)’ 등에 집중하며 사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매년 연간 매출의 25%를 R&D에 투자해오고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기술연구네트워크



흥은택 카카오 대표

도 꾸준히 강화했다. 실제 네이버는 미국, 유럽, 한국을 잇는 글로벌 AI(인공지능) R&D 벨트를 확보했다. 프랑스 제록스리서치센터 인수, AI(인공지능) 연구 공간 ‘HUST-네이버 AI 센터’ 설립, 미국 R&D 조직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네이버는 특히 포쉬마크인수를 지난 6일 마무리했다. 포쉬마크를 통해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최근 70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

트인 ‘네움시티’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대표 및 임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하는 일정에 동행한다. 또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네이버 기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카카오도 본격적인 글로벌 전략 추진에 나선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남궁훈 전 대표를 미래이니셔티브센터 내 상근 고문으로 임명했다. 재발방지대책공동소위원회장으로 활동한 고우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최고클라우드 책임자(CCO)는 대표 직속으로 신설된 인프라 부문을 맡기로 했다.

카카오는 관심사 기반의 비(非) 지인간 연결을 담당하는 오픈링크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며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픽코마 등이 보유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낙점했다. 카카오편 메타버스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발판으로 ‘비욘드 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유니버스의 오픈링크 서비스를 활용해 비지인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글로벌서비스와 연계해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다양한 글로벌 메가 히트작을 선보이며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 올해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 열풍을 이끌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웹소설 시장은 웹툰 시장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북미 웹소설 진출 강화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中企 해외진출 지원 팍팍… 올 2292억 투입

중기부, 관련사업 예산 6.6% ↑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갑자기 불거진 중국의 비자중단 조치에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바로 가동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의 2150억원보다 6.6% 늘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한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도 개편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

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함께 모집한다.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이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차지한다.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내수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물류전용바우처는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간 네트워크·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벤처캐

피탈)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위기에 강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표그룹, 덤프트럭 운송매칭 플랫폼 선포

앱 ‘배차장’, 세금신고·정산 등 가능

삼표그룹이 국내 건설자재 운송 시장 최초로 골재, 토석 등을 나르는 덤프트럭 운송 매칭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삼표그룹 계열인 에스피네이처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주고 세금신고 등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운송 애플리케이션 ‘배차장(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차장’은 화주가 플랫폼에 가입한 후 출발지, 도착지, 운송량 등 품목 및 운임 정보가 담긴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해당 정보를 선택한 뒤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핵심은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상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세한 차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와 빈차로 돌아오는 ‘공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산과정 역시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되는만큼 기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



망이다.

‘배차장’의 주요 기능은 ▲근거리 배차 서비스 정보 공유 ▲투명한 운임 정보 공개 ▲차량 유형별 빠르고 안전한 정산 서비스(세금 신고) ▲실시간 책임 배차 모니터링 등이 있다.

단순히 물량과 차량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서비스와 세금 신고까지 연동해 모바일 원클릭으로 차별화된 운송 플랫폼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스팸문자 주의보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대상 확산”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빙자한 스마트폰 스팸문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표적인 스팸문자가 ‘귀하께서는 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특례지원 긴급대출’ 신청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돼 재안내 드립니다. 이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품 안내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스팸문자(피싱 추정)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스팸문자 특징은 ▲정부의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

칭의 대출상품 안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의 용어 사용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지역신보와 관계없는 전화번호로 즉시 신청 유도 등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출 홍보 문자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해당 전화번호로 곧바로 회신전화를 하지 말고 전국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국내 완성車업계, 설 앞두고 무상점검 실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2023년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내 5개 제작사(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모두 참여해 실시한다.

현대차는 128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렌즈)에서, 기아는 771개 서비스 협

력사(오토큐)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직영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